

광주·전남 확진자 2명 중 1명은 ‘외국인’

31일 반나절 31명 확진...이 중 15명이 외국인

방역당국 “백신 접종·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조치”

광주·전남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반나절 만에 확진자 중 절반이 지역 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되면서다. 방역 당국은 무비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홍보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31명(광주 25명, 전남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13명은 광주 광산구 거주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나주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날 발생한 지역 확진자 2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이날 외국인 확진자들은 광산구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역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2주일 간 선제 검사로 확인된 감염자는 84명이다. 광주시는 광산구 등에 사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외국인 백신 예방 접종 신청자 수는 모두 4천500명이다. 전남에선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2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나주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코로나19 유증상 감염자로 조사됐다. 앞서 전남 나주에서는 광주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대 우즈베키스탄인(전남 2598번)이 친구(전남 2591번)와 접촉한 후 확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최근 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외국인 밀집지역과 전남 확진자들 간의 연관성을 역추적하고 있다. 또 최근 외국인 사업장과 생활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안센백신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이 단기

간에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또 도내 각 시·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대리인 예약도 가능하다. 마등록 외국인의 예방접종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황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 단속 및 강제퇴거 사례도 없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전남 거주자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 증상 의심 시 무료 검사, 백신 접종 적극 참여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추성기자

전남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출범

도, 33개 기관과 협업체계...예방·감시활동 강화

전남도가 도내 기관들과 손잡고 도민 안전을 위한 감찰 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안전 사각지대 제거에 나선다. 전남도는 31일 도내 33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형식적인 안전관리, 감독과 안전부시 관행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협의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도민안전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등 도내 10개 안전 분야 공사·공단 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협업해 안전부패 실태 조사와 정보 제공, 이행 성과 공유, 합동기

동감찰 실시 등 안전감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참여기관 중 전남개발공사는 대규모 택지 개발지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 감찰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 내 가스 사용 실태를 확인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 건설 현장 불시 안전감찰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자전거 합동단속 등을 중점 추진한다. 문금주 부지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합심해 만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안전 분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협의회를 주축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지역에 만연한 안전부패를 근절하

사와 정보 제공, 이행 성과 공유, 합동기

광주 사회적경제 쇼핑몰 ‘가치사세’ 오픈

9월1일 공식 운영...추석맞이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등

광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사세’가 1일부터 공식 오픈 한다. ‘가치사세’ 쇼핑몰은 ‘가치 잇는 광주·같이 사는 광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쇼핑몰에는 1천200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입점해 있다. 오픈 첫 날인 1일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21일)을 앞두고 명절 선물전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신규 회원 가입 축하 쿠폰 지급과 할인쿠폰 증정은 물론 오픈 첫 날 첫 구매 고객 50명과 최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쇼핑은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카드 결제·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한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마을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판매장인 ‘마을기업 상생숍’(홈플러스 개림점 1층)에선 3일부터 22일까지 개점 1주년 및 명절 이벤트 ‘1+1 행사’를 펼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가치사세 쇼핑몰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해 사회적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광주 덕림사 ‘색난’ 작품 보물 예고 문화재청이 31일 조선 후기 조각승(彫刻僧)으로 이름을 떨친 색난(色難)이 만든 ‘광주 남구 월산동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상존상 및 시왕상 일괄’을 비롯해 그의 대표작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상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지금까지 알려진 색난의 작품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다. 총 26구로 구성된 대규모 불상으로, 발원문을 통해 수조각승으로 활동한 1680년(숙종 6년)에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덕림사 관계자가 목조지장보살상존상과 시왕상 일괄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김예리기자

광주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31일 DJ센터, 지역 인공지능 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리콘밸리 현지 파트너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지역 내 우수 인공지능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역은 실리콘밸리 대표 스타트업 투자기관 플러그 앤 플레이의 멘토를 맡고 있는 기드온 마크(Gideon Marks), 샌드 힐 엔젤의 짐 코너 등 5명의 우수한 투자자가 맡았다. 이날 참가 업체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 14곳으로, 최근 3개월 간 해외네트워킹 전략과 투자유치(IR) 역량강화교육, 글로벌 투자자(VC, Venture Capital)와 직접 연계한 멘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 집중해왔다. 이번 설명회

에서 최종 선발된 5개 기업은 오는 10월 실리콘밸리 방문과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들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자 매칭과 멘토링 등 후속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실리콘밸리 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지난 2019년부터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

서 관련 기업의 세계적인 상품화에 성공하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광주의 목표와 비전을 찾았다”며 “이후 광주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 광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본사사령

▲김연수 편집국 지역특집부 차장(합평 지역 담당) <9월1일자>

市, 청림 라이브 콘서트...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광주시는 청림교육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림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40여명으로 제한하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 광주’를 통해 생중계했다. 청림 라이브는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문화 공연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이다. 딱딱한 강의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청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연은 ▲고전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춘향가’ ▲상항국으로 공직자의 공감과 고민을 함께 알아보는 ‘권과장의 후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재현해 일상 속 청렴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샌드아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쉬운 청렴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라이브 공연을 준비했다”며 “공직자들이 공연이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청렴에 친근하게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청렴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사용지
- 임대
- 판매
- A/S

T.375-5880

구인광고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캠코더, 카메라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062) 522-200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대출,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